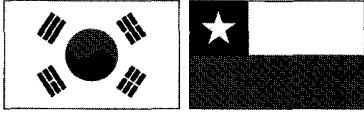


한·칠레 FTA 1년 바로보기



지난 4월 1일, 칠레와의 FTA가 발효 된지 1년이 되었다. 각계에서 칠레와의 교역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수가 애초에 우려했던 것만큼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지 않은 반면, 공산품 수출이 크게 확대되어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칠레와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후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기치를 걸고 올해 27개국과 동시다발로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으며, 2007년까지 최대 50개국과 협상을 진행하여 최소 15개국 이상과 FTA를 발효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한·칠레 FTA의 이러한 평가는 향후 FTA협상 진행에서 농업부문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 우려했던바 데로 언론·경제계·정부는 칠레와의 교역 성적 외곡하면서 동시다발적 FTA의 명분쌓기에 분주해 있다.

따라서 한·칠레 FTA 1년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시다발적 FTA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머리를 맞대보자.

FTA 1년,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하나. 칠레와의 교역 어떻게 변했나?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전체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은 57.8%가 증가하였는데, 주력 수출품으로는 휴대전화 225.7%, 카메라·캠코더 100.8%, 컬러TV 96.8%, 자동차가 59% 순으로 확대되었다. 수입은 54.3%가 증가하였는데, 적철광 932.4%,

몰리브덴광과 정광 463.5%로 크게 확대되었고, 농산물 중에서는 포도주 등 가공품이 169.7%, 삼겹살 58.4%가 늘어났다.

눈여겨 볼 것은 수출입 모두 발효 전보다 확대가 되기는 했으나, 교역비중이 수출입 모두 1%미만으로 발효 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즉, 발효 이후 칠레와의 교역이 다른 나라와의 교역과 비교했을 때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한 수출이 확대되었으나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51.9%가 늘었다.

농산물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수출은 변화가 없는 반면, 수입은 50.3%가 증가해 전체 농산물 수입 증가율보다 5배가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증가율 12.1%보다 매우 높았다.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붉은 포도주 169.7%, 흰포도주 119.0%, 토마토페이스트가 106.6%, 삼겹살 58.4% 등으로 나타났으며, 신선포도의 경우 오히려 2.2%가 줄었다. 신선포도와 키위 등 신선과실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둘. 국내 주요 품목의 변화는? 과수분야의 경우 2003년에 비해 재배면적이 포도 8.6%, 배 4.5%가 각각 감소했으며, 사과 1.1%, 키위 14.2%가 각각 증가했다. 생산량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교역 변화>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전체 교역 변화			농축산물 교역 변화		
		03.4~04.2	04.3~05.2	증감율	03.4~04.2	04.3~05.2	증감율
수출	전체	188,906	237,393	25.7%	1,584	1,776	12.1%
	칠레(비중)	465(0.2%)	734(0.3%)	57.8%(-)	1(0.0%)	1(0.0%)	-(-)
수입	전체	168,281	209,220	24.3%	7,625	8,561	12.3%
	칠레(비중)	1,136(0.8%)	1,753(0.8%)	54.3%(-)	54(0.7%)	81(1.0%)	50.3%(-)
무역수지	전체	28,173	28,173	36.6%	△6,041	△6,785	12.3%
	칠레	△671	△1,019	51.9%	△53	△80	50.9%

자료: 한국무역협회, 농림부

2003년 대비 포도 7.7%, 사과 2.2%가 각각 감소한 반면, 배 42.6%와 키위 30%가 증가했다. 가격은 모두 상승했으며, 특히 사과가 49%, 배가 41.1%가 상승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사육두수 3.5%, 생산량 4.5%가 감소했으며, 가격은 29.8%로 대폭 상승했다.

이상으로 칠레와의 FTA 1년의 교역변화와 국내 주요품목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언론과 경제계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국내 농산물의 피해가 우려한 만큼 크지 않아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변화가 성과가 있는 것인지, 우리 농업부문에 피해가 없는 것인지 다각도로 살펴보기로 하자.

FTA 1년, 제대로 평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 평가하기 관찮았나? 칠레와의 FTA가 4월에 발효되었는데, 농업의 특성상 FTA 발효 이전에 이미 작물의 파종이나 식재가 완료되었으므로, FTA가 국내 생산과 가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2005년부터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고작 1년이 지났는데 농산물 교역현황을 평가하

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관세철폐가 품목에 따라 5년에서 길게는 16년까지, 또는 DDA농업협상 이후에 완전철폐되게 됨으로, 관세감축 효과가 아직까지 미미한 품목은 교역에서 큰 이득을 남기기 어렵다. 따라서 1차년도 관세감축이 된 품목들은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는 신빙성 있는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 과수와 축산물 수입이 적어 피해가 적었다?

애초에 우려했던 포도와 키위 등 신선과일의 수입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했다고 한다. 실지로 신선포도의 경우 발효 전에 비해 2.2% 감소했으며, 키위도 발효 이전에는 칠레산이 12.0%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발효 후에는 9.2%로 낮았다.

그러나 칠레의 신선과일의 수입이 크게 확대되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데 있으며, 결코 수입이 적게 되었던 것은 아니다. 첫째, 포도의 경우 2003년 국내 과실의 작황부진으로 포도 수입량(11,332톤)이 평년(6,500톤 수준)에 비해 크게 증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FTA 발효 이후 포도수입량(9,970톤)은 평년을 웃도는 수준이다. 둘째, 칠레산 신선포도의 수입량 점유비가 FTA발효 이전 79.2%에서 81.4%로 높아졌다. 셋째, 칠레

<한·칠레 FTA 발효 전후 국내 주요 품목의 생산 및 가격변화>

(단위 : ha, 천톤, 천두, 원)

2003	재배면적(사육두수)			생산량			도매가격		
	2003	2004	증감율	2003	2004	증감율	2003	2004	증감율
포도	24,901	22,768	△8.6%	376	347	△7.7%	21,569	26,178	21.4%
사과	26,398	26,676	1.1%	365	357	△2.2%	32,197	47,965	49.0%
배	24,061	22,982	△4.5%	317	452	42.6%	29,574	41,743	41.1%
키위	873	997	14.2%	10	13	30.0%	30,953	37,005	19.6%
돼지고기	9,231	8,908	△3.5%	783	748	△4.5%	2,860	3,713	29.8%

주: 1. 도매가격은 포도(캠벨 5kg 상품), 사과(후지 15kg 상품), 배(신고 15kg 상품), 키위(10kg 상품), 돼지고기(비육돈/kg) 기준임(가락시장 가격)
 2. 도매가격 증감율은 2003년의 경우 2003.4~2004.2월까지 월평균 가격의 단순평균이며, 2004년은 2004.4~2005.2월의 월평균 가격의 단순평균임

산 포도는 계절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시기가 11월~4월인 점을 감안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FTA가 지난해 4월에 발효되어 11월까지 수입이 되지 않았고, 대략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만 수입이 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 실지로 2005년 1월~2월까지 수입액이 2,225천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67천달러의 14.6%가 증가했다. 넷째, 키위와 포도 공히 칠레 3개 지역에 '지중해과실과리'가 발생하여 2004년 4월부터 12월 까지 수입금지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증가율 보다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증가율이 낮았다고 하나, 여기서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 칠레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둘째, 삼겹살 등 냉동 절단육의 경우 10년간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으로 1년차에는 관세인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4년 칠레산 돼지고기의 관세가 23.8%로 다른 수출경쟁국에 적용되는 관세 25%보다 1.2%p 낮았음에도 수입이 63.3%나 증가했다.

셋. 국내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 국내의 주요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여, 애초에 우려했던 농산물 가격하락으

로 인한 피해가 적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첫째, 과일의 경우 2004년에 기후여건의 좋아 과실의 품질과 당도가 높아지고, 홍보 확대로 소비가 확대된 것 때문이다. 둘째, 돼지고기의 경우 광우병에 따른 쇠고기의 소비 대체에 기인한 것이다. 결국 국내 가격이 상승한 것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며, 칠레산 농산물의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현재보다 낮아지고, 관세가 점차적으로 감축되게 되면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넷. 공산품 수출이 확대된 요인은? 공산품의 경우 자동차, 휴대폰, 컬러TV 등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FTA발효에 대한 효과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칠레와 남미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 경기호전 효과도 한몫을 했다. 실지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대부분의 국가들 또한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둘째, 2004년 시장점유율이 2003년 대비 37.7%가 증가했지만,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48.3%)과 일본(30.2%)과 비교했을 때 높다고만 할 수 없다. 현재 일본이

칠레와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발효가 된다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 공산품 수출과 시장점유율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가 되겠는가. 셋째, FTA로 인해 수출이 늘었다는 논리는 결국 관세를 철폐하여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수출이 늘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분명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만약 제품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면 당분간은 관세가 없어진 만큼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통계를 왜곡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섯. 국익에 의한 FTA? 'FTA 추진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다수의 정부관료와 경제인들은 '국익을 위해서'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러나 칠레와의 FTA발효 후 공산품수출이 57.8%가 증가했지만, 그로 인해 오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농업을 위해 분배되거나 사회에 직접적인 환원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득은 공산품부문이 보고 있으나, 농업 피해지원을 위해서 국민전체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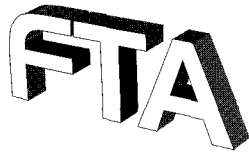
또한 수출 확대에 의한 국내 경기회복과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는가를 따져보자. 수출주도의 양적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우리 경기는 지속적인 고강도의 구조조정에서 시달리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이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실업문제가 구조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경제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출이 확대되었다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진실을 말하라!

미국의 'USDA보고서'에 의하면, 멕시코의 좋은 기후조건과 낮은 인건비 때문에 세계 최대 농업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이 지난 11년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채소와 과일분야가 거의 붕괴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썬키스트가 막대한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거대한 트리벨리 협동조합 또한 파산을 했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농업 선진국인 미국도 이처럼 붕괴되는데,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업이 과연 자유무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우리 농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더 크게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이 경쟁력이 있다며 무분별하게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더욱 불신감을 가지게 만들고 있다. 우리 보다 농업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도 농산물개방 목표를 50%로 선언하고 우리와 협상에 임하고 있다. 우리는 협상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앞으로 관세는 계속 더욱 큰 폭으로 감축되고, 현재보다 더욱 많은 농가의 폐원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이 축소되게 되면 우리 농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은 뻔하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칠레와의 1년간 FTA성적을 왜곡 없이 평가하고, 농업과 국가경제에 대한 대책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다. 더욱이 현재 정부의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시책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동시다발적 FTA를 냉철하게 바라 봐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국익인가?'



참고: (한농연 홈페이지(www.kaiff.or.kr) → 정책자료실) '한·칠레 FTA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 정책해설자료 05-01